

Mitsui, PO 기능제품 잇따라 증설

TPX 7000톤에 APEL 5000톤 수준으로 확대 ... 탈범용화 움직임 주목

Mitsui Chemicals(三井化學)가 기능성 PO(Polyolefin) 제품인 TPX(Methylpentenecopolymer)와 APEL(Cyclo-olefin Copolymer) 생산능력을 잇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TPX는 2003년 가을까지 1000톤을 증설해 합계생산능력을 7000톤으로 끌어올리며, APEL도 보수공사에 이어 5000톤 체제구축을 위한 차기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MILLION(Ultrahigh Molecularweight Polyethylene) 등 다른 기능성 PO부품도 마케팅전략을 강화해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등, 독자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제품을 확대시켜 PO사업의 탈범용화 전략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TPX는 뛰어난 이형성과 가스투과성, 내열성을 갖는 투명수지이다. 휴대전화의 Flexible Print기관용 이형 필름으로서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벌써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어 생산설비증설공사를 2003년 가을에 실시할 계획이다.

APEL는 뛰어난 방습성, 광학특성, 내약품성, Size 안정성이 특징인 투명수지이다. 초저복굴절, 고굴절률을 지니고 있어 DVD나 CD용 Pickup Lens로서 채용이 늘고 있으며, 특히 엄격한 광학특성이 요구되는 DVD용 및 CD-R용 Lens로서는 업계의 De Facto Standard가 되고 있다.

또 APEL는 의료용 및 포장용 등의 분야에서도 용도개발이 가속되고 있고, 같은 PO계 수지로서 Polyethylene과의 상용(相溶)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PO Film에 뛰어난 Cut 성질을 부여하는 개질제로서도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런 특성에서 현재 연평균 3000톤의 생산능력을 조만간 5000톤까지 확대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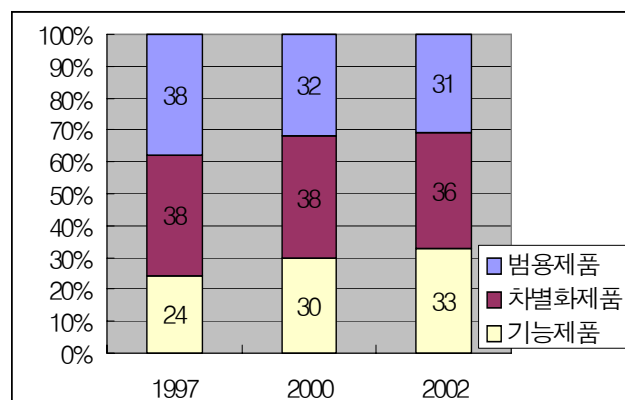
PO의 일본국내 선발 메이커인 Mitsui Chemicals는 종전부터 생산제품 중 고부가가치제품비율이 높아 업계에서도 발군의 고수익체질을 자랑해왔으며, 1997년 합작 이후 더욱 기능화제품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연간 매출액이 약 1900억엔인 PO사업을 범용제품, 차별화제품, 기능제품의 3가지로 분류하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부터 5년 동안 9p나 상승해 2002년에는 33%에 달했다.

TPX와 APEL은 최대제품인 Elastomer에 비해 아직 규모는 작으나 기능성 PO의 주력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2003년 중 책정될 차기경영계획에서 PO사업의 탈범용화 전략을 한층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HI-ZEX MILLION(Ultrahigh Molecularweight Polyethylene)이나 Polyethylene WAX 등, 다른 기능제품에 대해서도 확대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용도개발의 방향성을 일신하는 마케팅전략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

Mitsui Chemicals의 PO 판매 점유율



<Chemical Journal 2003/12/23>